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용서    제목: 대출 받은 용서    성경: 마태복음 18장  
23-35절

-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 25 값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 26 그 종이 앞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 29 그 동료가 앞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18:23-35)

용서는 믿음인가 윤리인가?

용서는 믿음과 순종의 윤리이다.

기독교 진리에서 용서란 믿음으로 시작된 끈의 맞은편이다. 믿음이 라는 끈을 잡고 올라가다 보면 그 끈은 어느새 용서라는 끈으로 변

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이럴줄 몰랐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냉철하게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대체적으로 1. 나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으며, 2. 아직은 용서할 단계도 아니며, 3. 이것 만큼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4. 이것은 용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5. (특히 크리스찬)이런 신령한 것을 훼손하는 일을 용납하는 것은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때를 곰곰이 생각한다면 위의 다섯가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은 부끄러운 이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실건지 말건지를 흥정하지도 않았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용서를 빌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용서됨을 확신하고 회개토록 하기 위하심이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이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지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고, 저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삶에서 건짐바 된 이후 내 입에서 신앙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끈의 다른 끝은 용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받음의 댓가로 용서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용서는 믿음이고 순종이고 윤리가 된다.

나는 용서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나는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나는 용서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여겨야 한다.

그러면 도데체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일만 달란트와 백 데나리온의 함수관계에 있다.

그리고 납입횟수는 일흔 번 씩 일곱 번, 즉 사백구십회다.

한 달란트는 약 4억8천만원. 1만 달란트는 4조 8천억. 한달 이자만 해도 매달 240억의 이자 발생.(최저금리 3% 120억)

한 데나리온은 약 10만원 백 데나리온은 천만원.

한 달란트는 약33kg 금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약 15억. 1만달란트는 15조원.(4대강 사업 초기예산 13조와 비슷함. 현재는 총 비용 약30조 추산)

그래서 이걸 대출로 환산 해 보면 백 데나리온은 하루 이자7억7천만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간단하다. 즉 결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용서 받았으니,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값이라는 뜻이다. 일만이라는 숫자의 의미와 일흔번 씩 일곱 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각각 너무 많다는 것과 완전하다는 뜻이 있다. 완전히 그리고 아주 많이 용서하라는 의미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복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금전거래로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면서 이 세상의 일들이 풀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돈이 풀어져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용서가 풀어져야 한다. 그래야 세상의 만사가 돌아간다.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동정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건강하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안전하다.

그런데 내가 동정해야 할 사람이 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동정해야 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를 한다. 말과 행동으로 상처들을 입힌다. 만약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을 살게 한다면 우리는 모두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용거래를 제의해 오셨다.

조건은 한쪽 끝이 용서인 믿음의 끈을 붙잡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내가 막대한 자금의 용서를 대출받은 것과 같다. 나는 날마다 그 이자를 내야 한다. 그 이자 또한 남을 용서하는 것이다. 오늘 당신은 이자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용서를 대출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오늘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당신은 신용불량자처럼 용서불량자가 된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당신을 고소할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하늘의 복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마음에 평안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기쁜 일이나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영적인 감옥이다.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18:23-35)

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용서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다는 것에 놀란다.

그들은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용서를 가늠한다.

나는 기독교인에게는 사법기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사법기관은 하나님의 오른팔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왼팔이다.

교회는 사법기관이 아주 잘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내가 사법기관을 신뢰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사법기관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우리 법률은 스스로 사법기관이 되는 것, 스스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